

名山서의 山祭와 集團등반은 빨리 사라져야...

踏壓·쓰레기·山火로 찌든 自然회복努力은 利用者の 義務,
權威있는 山岳會가 앞장서면 弊習 一掃될듯

吳 判 龍

지난 4월6일에 들어온 外信記事를 보면 쓰레기로 신음하는 「에베레스트」산의 自然회복을 위해 5년동안 自然休息制를 실시, 등정금지할것을 주장한 유명한 세르파의 아들이 있어 새삼 山岳등반자들의 자연과괴행위가 세계도처에 확산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통탄과 분노,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

에베레스트산의 自然휴식을 주장한 이 사나이는 지난 53년 5월29일 世界最初로 에베레스트산을 登頂한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라리卿을 도와서 함께 頂上에까지 올라 세르파로선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頂上을 밟은 텐징·노르게이씨 아들 노르부·텐징 군이다. 텐징군은 경쟁적인 에베레스트산 등정試圖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세르파組織이 崩壞되고 있다면서 『登山客들이 버린 莫大한 量의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는 에베레스트에 5年間 휴식기간을 주어 등정금지해야한다』고 절규한 것이다.

우리의 名山大川이나 海岸의 모습도 이와 더했으면 더했지 나올것이 없다. 입으로는 모두가 「산과 江, 그리고 바다를 사랑한다」 「自然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자랑하는데 어찌서 江山은 쓰레기로 뒤덮히고 溪谷마저 썩어가는가?

山祭를 例로 들어보자.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른다 해서 모두를 山岳人이라 할수없지만 山岳愛用 또는 利用者라해도 좋을것이다. 山祭를 지내는것을 특히 山岳人들은 큰자랑꺼리로 宣傳하고 行事表를 油印해서 크게 弘報하기도 한다.

國立·道立·郡立公園등 自然公園이 아닌 野山에서 그것도 山麓에서 親善과 褒賞行事를 兼해서 치루는 「祭」까지 나무랄수 없지만 漢拏山·小白山·智異山·雪嶽山등의 頂上에서 大的으로 행해지는 始山祭부터 철쭉祭·단풍祭·雪祭등등의

結果는 植生破壞와 糞尿·쓰레기동산을 만든것 以外는 무엇을 남겼으며 自然에 도움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自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自然에게 報答하는 선물인지 自省해야한다. 多幸히 작년부터 雪嶽산의 철쭉祭는 束草市의 協助로 山아래 廣場에서 舉行토록 하였다는 管理所의 말이 있어 自肅해가는 山祭態度變更을 높이 致賀하고싶다.

智異山 피아골의 단풍祭나 雪嶽山·漢拏山등 國立公園의 철쭉祭에는 全國의 山岳人들이 모여들고 觀光客도 한몫기는 大行事이기에 그 人派가 그대로 산으로 들어가면 登山路의 破損은 勿論, 길가의 철쭉은 짓밟히고 꺾여 荒廢되될 뿐이다. 漢拏山철쭉을 사랑한 어느 鄉土詩人은 이같은 철쭉祭의 파괴행위를 저주하고 슬퍼하여 철쭉祭 철폐론을 主唱한지 10년이 지났다. 數千數萬의 人波가 물밀듯 지나고나면 登山路는 아스팔트길같이 되고 길가의 草木은 모두 枯死된다. 어느나라 國立公園에 이런것을 容認하는곳이 있는지. 悲痛한 일이다.

우리도 하루속히 炊事場施設이 되어 산에 버너를 갖가지 못하게 團束하고 自己쓰레기는 自己배낭에 담아가는 것이 當然하고 自然스럽게 習性化되야만 한다. 무더위속에 汚物섞는 惡臭·쓰레기 燒却하는 고약한 냄새들... 버린자가 줍는者를 원망하는 잘못된 이 風潮는 清算돼야한다. 산을 利用하는 登山人은 누구나 共同意識과 義務感으로 산에서 쓰레기集荷場의 그 흉한 모습이 사라지도록 속죄·反省하고 努力해야한다. 權威있는 山岳團體가 앞장서서 나쁜 弊習을 一掃시키면 모두 따를것이고 山岳公園 보호운동은 빨리 成功할 것이라 믿어진다.

〔筆者：本會 事務局長〕